



군민이 신뢰하는 든든한 의회

2023년 완도군의의회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완도군 **경관 개선방안 연구** 및 **수산물 판로 개척 현장 점검**)

2023년도 10월



완 도 군 의 회

공무국외출장 개요

- 여행국: 라오스
- 출장목적: 완도군 경관 개선방안 연구 및 수산물 판로 개척 현장 점검
- 출장기간: 2023. 10. 4. ~ 10. 8.
- 보고서 작성자: 허궁희 의장, 조영식 부의장
조인호 의회운영위원장,
김양훈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산업건설위원장
- 출장자 인적사항

| 연번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비고 |
|----|-------|-------------|-------|----|
| 1 | 완도군의회 | 의장 | 허 궁 희 | |
| 2 | 완도군의회 | 부의장 | 조 영 식 | |
| 3 | 완도군의회 | 의회운영위원장 | 조 인 호 | |
| 4 | 완도군의회 | 행정자치위원장 | 김 양 훈 | |
| 5 | 완도군의회 | 산업건설위원장 | 박 재 선 | |
| 6 | 완도군의회 | 주무관(사회복지7급) | 김 찬 희 | |
| 7 | 완도군의회 | 주무관(행정8급) | 최 창 영 | |



목 차

| | |
|--------------|----|
| I. 연수배경 | 3 |
| II. 연수일정 | 4 |
| III. 연수국가 현황 | 5 |
| IV. 연수내용 | 10 |
| V. 연수총평 | 23 |

I 연수배경

연수기간

- 2023. 10. 4.(수) ~ 10. 8.(일) (3박 5일간)

연수지역

- 라오스(비엔티안, 방비엥)

연수목적

- 완도군 주요 관광지 경관 개선방안 연구를 위한 라오스 우수 경관 지역 벤치마킹
- 완도군 수산물 신시장 동남아 판로개척에 따른 현장점검
- 완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확대 및 지원을 위한 현장점검



<완도군의회 공무국외출장을 위한 심사위원회>

II

연수일정

| 날짜 | 지역 | 교통편 | 시각 | 세 부 일 정 | 비 고 |
|--------------|------|-------|-------|---|-----|
| 10.4. (수) | 인천 | QV924 | 09:25 | ·인천 국제공항 출발 | |
| | 비엔티엔 | 전용차량 | 12:50 | ·비엔티엔 국제 공항 도착 후 현지 해설사 미팅 ·라오스 문화유산 탐방 - 왓 탕루앙 ·라오스 국립재활시설 방문 - COPE 센터 ·숙박 및 휴식 | |
| 10.5. (목) | 비엔티엔 | 전용차량 | | ·조식 ·수산물 판매 동향 및 현장 방문 - 대형마트 ·중식 ·수산물 판매 동향 및 현장 방문 - 수산시장 | |
| | 방비엥 | 전용차량 | | ·방비엥으로 이동 ·석식 ·숙박 투숙 및 휴식 | |
| 10.6. (금) | 방비엥 | 전용차량 | | ·조식 후 방비엥 현장방문 ·문화유적 개선 현장방문-탐쌍 ·중식 ·라오스 자연 경관 개선 현장 방문 - 블루라군 ·숙소 귀환 후 휴식 ·석식 후 야시장 운영상황 탐방 ·숙박 및 휴식 | |
| 10.7. (토) | 방비엥 | 전용차량 | 전 일 | ·조식 ·비엔티엔으로 이동 ·중식 후 ·문화 유적 관리실태 및 경관 개선 현장 방문 - 왓시므앙 ·역사 유적 관리실태 및 경관 개선 현장 방문 - 빠뚜사이 ·석식 | |
| | 비엔티엔 | QV923 | 23:25 | ·공항으로 이동 출국 수속 ·비엔티엔 왓따이 국제공항 출발 | |
| 10.8. (일) | 인천 | | 05:55 | ·인천 국제공항 도착 | |

연수국가 현황

라오스(LAOS)

| | |
|------|--|
| 국명 | 라오 인민민주주의공화국(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
| 건국일 | 1975. 12. 2. |
| 총 면적 | 236,800km ² (한반도의 약 1.1배, 국토의 70%가 산악지대) |
| 인구 | 약 733.8만 명 |
| 수도 | 비엔티안(인구 약 96.9만 명, 면적 3,920km ² - 서울면적의 6.5배) |
| 민족 | 50개 민족(2018년 12월, 라오스 국회 채택) |
| 언어 | 라오어(태국어와 유사) |
| GDP | \$173억 4,700만(1인당 GDP: \$2,319) |
| 화폐 | 킵(대도시 및 관광지에서는 미국달러, 태국바트로 사용가능) |
| 종교 | 불교(69%), 토속신앙(28%), 기독교(1.5%) 등, 종교 포교 불허 |
| 정부형태 | 사회주의 공화국(라오인민혁명당 1당 체제) |
| 국가원수 | 통룬 시술릿(Thongloun Sisoulith) 대통령 - 1945년 생, 2021 3. 22. ~ 현재 |

○ (국기 및 지도)



- (역사) 라오스의 역사는 13세기에 중국 남부에서 살던 민족의 하나인 라오족이 지금의 라오스 영토로 이주해 온 것에서 시작한다. 1860년대 라오스 영토의 거의 대부분이 태국의 지배를 받았는데, 프랑스는 무력을 사용하여 태국 정부로부터 메콩강 동쪽의 영토 지배권을 인정받았는데 이 영토가 현재의 라오스가 된다. 1944년, 비시 프랑스가 몰락하자 자유 프랑스 쪽에 갈아타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이에 불안감을 느낀 일본 제국이 쿠데타를 일으켰다. 1945년 3월 프랑스 총독부를 폐지시키고 행정권까지 장악한 후 프랑스인들을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몰아낸 다음 각 지역의 명목상 군주들을 수반으로 한 (라오스 왕국)괴뢰국을 세웠다. 곧 이은 인도차이나 전쟁(1946~1954)이 끝난 후인 1953년 10월 22일 라오스는 독립을 획득했다. 이후 미국의 지원을 받은 라오스 왕국과 베트남의 지원을 받은 파테트 라오의 공산군 간의 내전이 시작 되었고, 라오스 왕국이 패전하여 1975년 12월 사회주의 정권의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이 수립되었다.
- (지리) 라오스의 지리적 위치는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도의 산악 지역으로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미얀마, 남서쪽으로는 타이, 동쪽으로는 베트남, 그리고 남쪽으로는 캄보디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내륙에 위치하여 해안선이 없으며 전체 면적은 약 236,800km²이다. 또한 길이는 약 4,020km, 유역 면적은 795,000km²으로 세계에서 12번째로 긴 강이며, 10번째로 유수량이 많은 강인 메콩강이 라오스를 관류하고 있다.

- (정치) 라오스는 사회주의 국가 또는 공산주의 국가이다. 현재 라오스의 정당은 라오인민혁명당 하나뿐이다. 국가 원수는 5년 임기로 선거로 뽑히는 국가주석이며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가주석이 임명하는 정부수상이 있다. 주변국인 중국, 베트남과 비슷하지만 2023년 기준 언론자유지수 순위상 베트남은 180개국 중 178위라서 중국, 북한 다음으로 가장 낮지만 라오스는 160위로 조금 높은편이다.
- (사회) 민족 구성은 라오족이 인구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라오통 22%, 라오송 9%, 베트남계 1%, 소수의 몽족과 기타 민족이 모여 살고 있다. 라오스의 모든 권력은 라오족이 쥐고 있을뿐더러 민족 간 갈등 또한 빈번하다.
공영어는 라오어이다. 라오스에서는 라오스 자체 방송이 각종 검열 등의 이유로 뉴스와 스포츠 중계방송을 제외하고 인기가 없기 때문에 태국 방송이나 태국영화를 보거나 태국 노래를 듣는 등 태국 문화의 영향력이 센 데다가 생계를 위해 태국으로 일하러 많이 가기 때문에 태국어도 널리 쓰이고 있다.
- (경제) 2023년 IMF 통계 기준, 1인당 GDP 1,878달러로 세계 190개국 중 150위인 빈곤국가이다. 국민의 생활은 거의 대부분 농업에 의존하며 공업은 미발달 상태에 있다. 그러나 벼농사조차 베트남과 달리 2모작밖에 못 지을 정도로 관개시설이 좋지 않고 인구도 많은 편도 아니고, 교통 인프라도 제대로 안되어 있으며 내륙국가 이기에 항구도 적었다. 하지만 그만큼 개발이 되지 않았기에 천혜의 자원이 가득한 나라로서 관광업으로 유명하다. 또한 메콩 강에서 수력 발전으로 생산되는 전기가 많아 옆나라 태국에 팔기도 한다.

비엔티안(Vientiane)

- 면적 : 3,920km²
- 인구 : 1,003,004명
- 인구밀도 : 1,8283.9명/km²
- 라오스의 수도로, 정치·행정·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라오스의 중심지이며, 라오스의 변화와 성장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다. 1989년 비엔티안주(khoèng, 쁡)에서 유일한 행정단위인 특별시(nakhon luang, 나콘루앙)로 분리·신설되었다.
- 라오어로 ‘비앙(vieng)’은 도시를 의미하며, ‘티안(tiane)’은 달을 가리킨다. 즉 비엔티안은 ‘달의 도시’라는 뜻이다. 라오스 국기에는 비엔티안을 상징하는 달이 새겨져 있다. 외국 사람들은 라오스의 수도를 비엔티안이라고 하지만 정작 라오스 사람들은 ‘위양짚(Wiang-chan)’이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비엔티안은 프랑스 식민지 시절 프랑스인이 라오스 현지 발음을 프랑스식으로 표기한 것인데, 현대에 들어와 그것을 영어식으로 읽다 보니 생겨난 이름이다.



방비엥(Vang Vieng)

-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에서 약 1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몇 년 전만 해도 비엔티안 인근 작은 마을에 지나지 않았지만 지금은 비엔티안과 루앙프라방을 잇는 거점 지역으로 관광객을 모으고 있다.
- 본래의 지명은 무앙송(Mouang Song)이었으나 프랑스 점령기 이던 1890년대에 현재의 지명으로 교체되었다. 베트남 전쟁 기간이었던 1964년부터 1973년까지 미국이 이곳에 공군 기지를 세우고 도로와 활주로 등 기반 시설을 건설하면서 마을의 규모가 확장되었다.
- 계곡을 흐르는 강과 곳곳에 위치한 동굴들이 많아 동굴탐험, 트래킹, 카약킹, 튜빙, 쥘라인, 기구 등 레저 스포츠가 유명하다.
- 남송강을 끼고 있으며, 우림과 카르스트 산으로 둘러싸인 아름답고 독특한 풍경을 자랑하며, 중국의 계림을 연상한다고 하여 작은 계림으로 불리고 있다. 또한, 석회암 지형으로 특유의 기묘한 봉과 직벽들이 많은데, 석회암 동굴만 무려 2,500여개가 넘는다고 한다.



IV 연수내용

코프센터(COPE Center)

□ 현황

- 인도차이나 전쟁 당시 미 공군에 의해 라오스의 많은 지역이 공습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일부 불발탄이 산재한 상황에서 2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는데, 이들의 재활과 치료를 돕기 위해 1996년 설립되었다. 폭발물 피해자의 참상을 알려 주기 위한 영사실과 전시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형 불발탄과 기증된 의족 등이 전시되어 있다. 기념품 판매 수익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 그 밖에도 COPE 센터는 피해자들에게 재활을 위한 교정기와 치료제를 제공하며, 폭발물 부상자 이외에 교통사고로 인한 환자들과 신체적 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들도 돕는다.

□ 시사점 또는 느낀점

- 라오스의 역사는 강대국들에 의해 식민지배를 당하고 분단되어 내전을 겪는 등 한국의 비극적인 역사와 매우 유사하였으며, 지금의 한국이 역경을 극복하고 선진국이 된 것처럼 라오스도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느꼈다.



탓 루앙(That Luang)

□ 현황

- ‘위대한 탑’ 탓 루앙은 국장과 지폐에 사용될 정도로 라오스에서 가장 신성시되는 탑이다. 1566년, 미얀마의 침공으로 인해 루앙프라방에서 비엔티안으로 수도를 이전하게 된 췌타티랏 왕이 새로운 수도에 불심을 모으려 건설하였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3세기경 인도의 아소카 왕(King Ashoka)이 파견한 승려와 학자가 부처님 골반 사리를 모시기 위해 푸 루앙 언덕에 처음 탑을 세웠다고 한다.

- 당시 라오스의 왕은 기념비 너머에 탑을 세우고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탑'이라고 새겼다. 현생에서 30가지의 선행을 실천하라는 의미인 30개의 작은 탑이 직사각형의 기단부 위에 연꽃 봉오리를 형상화한 첨탑을 둘러싸고 있다. 탑 안에는 아소카 왕의 유물이 있고 84,000개의 작은 탑들 안에 부처 제자들의 유골재를 넣어 네 귀퉁이의 둥근 탑에 분산 배치했다고 전해진다. 땃 루앙 입구에 쉿타티랏 왕의 동상이 있고, 남쪽에는 대형 와불상이 있다. 일부 시설은 스님만 출입이 가능하여 전체 시설을 볼 수는 없었다.
- 11월 보름에 열리는 땃 루앙 축제에는 전통 복장을 입은 많은 참배객들이 전국에서 모여드는데 축제 기간에는 승려들이 대거 참여하는 탁발 의식이 행해지고, 참배객들은 프라삿 프앙(바나나 줄기에 꽃을 장식해 만든 탑 모양의 꽃다발)을 들고 탑돌이를 하며 기원을 한다. 불교 신자인 라오스인들은 땃 루앙 축제의 탑돌이에 평생 한 번이라도 참여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한다. 지면은 지하세계, 기단부 위는 인간세계, 그 위는 천상계인데 땃 루앙 축제 때만 열리며 유일하게 이곳 출입이 가능한 대중정 승려가 대중들을 향해 축원과 설법을 한다.

□ 시사점 또는 느낀점

- 라오스에서는 사원이 전통적인 촌락 생활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어 마을 주요 행사나 회의 장소로도 이용되며 승려는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계층 중 하나로 불교가 종교를 넘어 생활이 되어있다. 따라서 이러한 종교시설은 하나의 관광지로 구성되어 있어, 우리 완도군에도 점목할만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군의 신흥사의 템플스테이 지원,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힐링캠프 체험, 불교 문화유산을 활용한 이벤트 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장보고 대사가 지은 사찰인 법화사와 관련하여, 우리 완도군도 중국의 법화원과 협업하여 완도 법화사지를 더욱 연구하고 관광지로 개발하여 중국인을 비롯한 다양한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관련 사항을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콕콕메가마트(Kok Kok Mega Mart)

□ 현황

- 콕콕메가마트는 2020년 장보고한상 대상을 수상한 코라오그룹의 오세영 회장이 설립한 대형마트로 2023년 1월말에 오픈하였다.
- 매장규모는 총 약 4,300평으로 판매지역 1,600평, 물류창고 390평, 주차 공간 1,500평, 빌딩 지역 2,800평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고객 층은 코라오 계열사인 인도차이나은행 VIP 고객 5만여명, 코라오 개발(자동차 판매) 이용 고객 2천여명, 온라인 콕콕챗 유저 4만여명, 레인샹 미디어 팔로어 30만명 등이며, 향후 2025년까지 대도시에 16개 매장 추가 오픈 및 비엔티안 지역 내 1,000곳에 콕콕M 미니 마트 순차적 오픈 예정이라 하였다.
- 콕콕메가마트는 완도군과 2022년 10월 업무협의를 하였으며, 2023년 2월, 6월 두차례 ‘라오스 콕콕메가마트 판촉전’ 을 개최하여 완도의 수산물을 선보인적이 있다.



- 콕콕메가마트의 관계자와 만나 완도군 수산물 판매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완도군에서 제작된 다양한 수산물 제품들이 현재 들어와있는 상태로 조미김, 김 자반 등 식사에 입맛을 돋울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팔리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 완도군의 대표 수산물이라 할 수 있는 전복은 비싼 가격과 홍보 부족으로 인해 라오스 현지인보다 주로 라오스에 있는 한국인들이 구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였다.
- 라오스 현지인들 입장에서는 전복이 들어간 제품의 가격이 부담되고 전복을 섭취했을 때 건강에 미치는 효능보다는 맛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인 것 같다는 관계자의 분석이 있었다. 그리고 라오스 사람들은 식당에 가기보다 주로 집에서 식사를 해결하는데 해산물을 구입하여 해초 비빔밥 등을 조리 할 경우, 고추장 등 다른 재료들을 추가로 구입해야하는 점 때문에 재구입을 꺼려하는 상황도 있다고 하였다. 또한, 미역면이나 다시마면 같은 경우도 식감이나 맛이 아직은 라오스인들에게는 생소한 점이 있다는 난점도 있었다.

□ 시사점 또는 느낀점

- 라오스는 내륙국가라서 민물고기나, 민물가재 등을 많이 먹으며,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요리를 주로 먹는 편이다. 따라서, 해산물 식문화는 아직 라오스 사람들에게는 그리 익숙하지 않은 편

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해산물을 수출하는데만 그치지 말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우리 완도군의 우수한 해산물의 장점을 알리고, 라오스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해산물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수출하고, 더 나아가 동남아 등지에 수출을 늘리기 위해 현지인들의 입맛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는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방비엥(Vang Vieng)

□ 현황

- 방비엥은 라오스 비엔티안성에 있는 조그만한 관광마을이다.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에서 150km정도 떨어져 있으며 루앙프라방과 비엔티안의 중간 거점쯤 되는 곳이다. 자연을 이용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으며, 그 중에 남송강에서의 카약킹과 동굴투빙이 유명하다. 마을은 남송강을 따라 높은 석회암 봉우리를 비롯한 카르스트 지형이 형성되어 빼어난 절경을 자랑한다.

□ 시사점 또는 느낀점

- 방비엥의 파쌍 마운틴 동굴 지역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진행되는 수상 레저 활동을 감상할 수 있었다.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 “꽃보다 청춘”으로 유명해진 관광지가 되어 많은 한국인들이 찾아와 레저 스포츠를 즐기는 모습 또한 볼 수 있었다. 천혜의 자연 경관과 더불어 이를 이용한 관광 상품인 수상레저, 짚라인, 제트보트 등 액티비티 관광을 앞세워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어 레저 활동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하여 완도군의 해양 자원을 이용한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에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야시장(Night market)

□ 현황

- 라오스의 방비엥과 메콩강변의 야시장은 관광객들이 꼭 한번 이상 들리는 곳으로, 다양한 상품들과 먹을거리 그리고 화려한 조명 등이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었다.
- 방비엥의 야시장에는 주로 손으로 직접 만든 전통 의상이나 장신구, 잡화류가 많았고 가격이 저렴하여 제법 사고 싶은 것들도 많았지만, 가이드는 무조건 어느 정도 깎은 가격으로 사야 한다고 말해주었다.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전통시장처럼

가격을 흥정해 보는 재미도 가질 수 있었고, 라오스인들의 친절함과 상냥함 그리고 합리적인 계산을 확인 할 수 있었다.

- 비엔티안의 메콩강변 야시장은 현대적인 건물옆에 비교적 방비엔보다 큰 규모로 조성되어 있었다. 단순히 상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규모의 놀이기구가 운영되며 시끄러운 음악과 함께 자리를 잡고 음식을 먹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메콩강은 한국에서 제방을 쌓아 범람을 막고 이를 공원화하는 ‘메콩강변 종합 관리사업’을 진행하여 우리나라와도 인연이 깊은 곳이기도 했다. 이 곳은 주로 가짜 명품과 전자기기 등 다양한 물건들을 팔고 있었다. 그리고 상인들은 라오스인들이 아니라 태국인, 중국인, 베트남인들 같은 외국인들이 대부분이라고 하였다.

□ 시사점 또는 느낀점

- 이 곳 라오스의 야시장은 나름의 매력으로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었지만, 일부 비위생적으로 운영되는 길거리 음식이라던지, 과도하게 외국인으로만 이루어진 상권이라던지 우리군의 시장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점도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 하지만 이곳 야시장에서 보여준 라오스인들의 열정적이고 친절한 태도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우리지역에 라오스 국적의

계절근로자들이 근면하고 성실한 태도로 많은 사업주들로부터 호감을 받고 있다는 점도 떠올릴 수 있었다.

- 현재 한국 경제와 산업 상황상 외국인근로자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지역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의 한축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단순히 많이 받아들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에 노동력을 제공할수 있도록 그들의 처우개선과 인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될 것이다.



빠뚜사이(Patuxai)

□ 현황

- 빠뚜싸이는 세계대전과 독립전쟁으로 인해 사망한 라오스인들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된 것으로 프랑스 개선문을 모티브로 라오스의 전통양식을 가미해 건설되었다.
- 라오 인민민주주의 공화국(1975년~현재)의 상징적인 건축물로, 제2차 세계대전과 프랑스 독립전쟁으로 사망한 라오스인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로열 라오 정부(1949년~1975년 라오스 왕국 시대) 시절에 만들었다. 1975년 12월, 빠텟라오 정권이 들어선 후 로열 라오 정부 시절의 명칭인 ‘아누싸와리(기념물)’ 대신 ‘빠뚜싸이’로 명칭을 바꾸었다. ‘빠뚜(문)’와 ‘싸이(승리)’라는 이름대로 라오스의 개선문으로 알려져 있다. 1950년대 인도차이나에 대한 미국의 대외 원조법에 따라 미국 정부가 당시 ‘로열 라오 정부’의 공항 건설을 위해 시멘트를 지원하였지만 공항 대신 이 빠뚜싸이를 만들었기 때문에 ‘서 있는 활주로’란 별명이 있다.
- 빠뚜싸이는 프랑스 개선문과 라오스의 전통 양식을 혼합해 만들었는데, 정사각형의 구조로 동 · 서 · 남 · 북 네 방향으로 문이 있고, 각 문의 모서리에는 나가가 장식되어 있다. 동 · 서 · 남 · 북 거리의 기준점이 되는 빠뚜싸이는 비엔티안 도로의 출발점이기도 하여 ‘동양의 샹젤리제’로 불리기도 한다. 새와 사람이 합쳐진 신인 낄나리(Kinnari)를

비롯하여 1층의 천장과 벽면에는 가루다, 비슈누, 시바, 브라마, 인드라 같은 힌두교 신들과 힌두 신화인 라마야나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연꽃, 코끼리 등을 조각해 놓았으며 실내에 있는 계단을 오르면 기념품 가게도 있다.

- 빠뚜싸이의 묘미는 꼭대기에 올라 동 · 서 · 남 · 북 비엔티안의 전망을 만끽할 수 있다는 점이다. 2004년, 중국이 두 개의 분수대를 포함한 공원을 조성한 후 비엔티안 시민들이 아침, 저녁 운동 장소로 즐겨 찾으며 공원 내 벤치는 젊은 연인들의 데이트 명소가 되었다. 낮이면 시원한 물줄기를 뿜어내고 밤이면 아름다운 빛과 음악이 흐르는 곳이라 비엔티안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다.

□ 시사점 또는 느낀점

- 이 곳은 마치 우리군의 랜드마크인 완도타워와 비슷한 관광지라고 생각되는데 이 곳의 경관을 참고하여 우리군의 완도타워를 비롯한 대표적인 관광지의 경관개선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V

연수총평

- 우리군은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 라는 브랜드를 내걸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지역 이미지를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인식 부족과 낮은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의 중요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우리군의 경관개선사업의 경우 유사사업과 차별성이 부족하고 사업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경관사업은 생활환경 개선과 볼거리를 제공하는 실질적 수단이라는 의의가 있는 만큼,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효율적 사업추진 체계를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라오스 연수를 통하여 경관개선 사업에 대한 느낀 점과 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 첫째, 경관사업이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직접 수단이지만 사업 차별화의 한계가 문제이다.

라오스는 부족한 사회기반 시설과 낙후된 문화시설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자연 조건을 이용하여 경관개선 한계를 극복하고 관광상품으로 이어가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다만, 경관개선의 아이템이 대부분 관광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하여 차별성이 부족하고 지속적인 사업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라오스의 경우 경관개선의 차별성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홍보 마케팅, 새로운 스토리 텔링, 관광객 유인책 등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하는 모습은 향후 우리 군의 사업추진 방향에 시사점을 주고 있었다.

완도군의 경관개선도 단순히 해안선, 도로 주변, 도시미관 등을 정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다른 지역과 차별성에 주안점을 두고 이러한 것을 지역의 볼거리로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완도읍의 비석거리 경관개선 사업이 대표적이다. 위험한 절벽, 낡고 오래된 주택, 쓰레기로 뒤덮인 생활주변 등이 경관개선을 통하여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리고 완도읍의 천연기념물인 주도를 중심으로 해안도로가 초승달처럼 빙그레 웃는 모습으로 부드러운 유선형 도로가 있는데 경관개선 사업 이후 사람들이 이 도로를 빙그레 도로로 부르고 있다는 스토리텔링도 관광 소재로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거둘 때 사업효과는 더 커지고 오래 지속될 것이다.

- 둘째, 경관개선 사업의 중요성 인식 및 공무원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경관개선이 낙후된 지역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공동체 의식 향상 등의 시행 효과가 있고 향후 사업의 확대 추진 필요성에도 공감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사업이 사회기반 시설 확충과 생활편의를 도모한다는 것에 초점이 이루어져 경관개선과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공사업이 완공되더라도 도로변 불법 적치물이 늘어나 사업효과가 낮아

지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업의 효과가 실현될 때 경쟁력있는 지역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뒷받침을 위해서는 공무원 전문성 강화도 반드시 필요하다.

- 셋째, 주민들의 역할 확대와 행정의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경관사업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완도군 차원의 관광경관개선, 생활경관개선, 규제지역의 지원으로 사업목적을 세분화하여 사업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민참여를 강화하고 유사사업을 연계 시행하며, 행정의 지원역할을 강화하여 효율적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뿐만 아니라 사업 관련 인식을 개선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후유지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주체 대상의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 한편, 소비자의 생활 습관이 변화되고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조류가 슈퍼푸드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의 관심으로 우리나라 해조류 생산은 연간 6.1%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우리 군은 전국 해조류 생산량의 48% 차지하고 있는 대표 수산군으로 해조류 산업 중심에 서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해조류 수출은 김이라는 단일 품목에 집중돼 있으나 전 세계적인 해조류 수요 증대에 따라 기타 해조류 제품에 대한 소비와 개발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글로벌 수요를 반영한 우리나라 해조류 수출 다각화도 여러 방면에서 펼쳐지고 있다. 해조류 수출은 2016년 이후

우리나라 해조류 품목별 생산량 추이

(단위: 천 톤)

| 구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비중 | 연평균 증가율 |
|-------|---------|---------|---------|---------|---------|-------|------------|
| 합계 | 1,395.3 | 1,769.7 | 1,721.8 | 1,851.2 | 1,769.2 | 100% | 6.1% |
| 다시마류 | 433.3 | 542.3 | 572.7 | 662.6 | 675.1 | 38.2% | 11.7% |
| 김류 | 409.4 | 523.7 | 567.3 | 605.8 | 536.3 | 30.3% | 7.0% |
| 미역류 | 498.7 | 624.7 | 522 | 525.2 | 506.6 | 28.6% | 0.4% |
| 툇 | 34.2 | 56.7 | 39.5 | 39.8 | 28.0 | 1.6% | -4.9% |
| 파래류 | 8.2 | 6.8 | 7.0 | 6.6 | 8.6 | 0.5% | 1.2% |
| 청각 | 4.5 | 4.2 | 3.4 | 3.5 | 7.2 | 0.4% | 12.5% |
| 개꼬시래기 | 0.0 | 1.6 | 0.9 | 1.8 | 3.7 | 0.2% | 30.9% |
| 매생이 | 3.2 | 6.3 | 7.0 | 3.4 | 2.1 | 0.1% | -10.3% |
| 기타해조류 | 0.2 | 0.1 | 0.7 | 1.5 | 0.8 | 0.0% | 36.6% |
| 우뭇가시리 | 2.8 | 2.8 | 1.1 | 0.7 | 0.5 | 0.0% | -35.7% |
| 모자반 | 0.2 | 0.3 | 0.3 | 0.3 | 0.3 | 0.0% | 12.1% |
| 꼬시래기류 | 0.0 | 0.1 | 0.0 | 0.0 | 0.0 | 0.0% | -12.4% |
| 도박류 | 0.5 | 0.1 | 0.0 | 0.0 | 0.0 | 0.0% | -63.7% |

연평균 11.8%씩 성장했으며, 2020년 기준 6억8800만 달러를 수출했다. 특히 해조류 수출품목 중 김은 대표 수출품목으로 전체 해조류 수출금액의 8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2020년 6억 달러를 수출했다. 김 이외에도 미역(5.4%), 툇(2.5%), 한천(1.6%), 다시마(0.9%) 등 다양한 해조류가 수출되고 있다.

다이어트식으로 자리 잡은 미역, 일본에서 각광받고 있는 툇,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는 한천, 슈퍼푸드로 떠오르는 다시마 등 최근 가정간편식(HMR) 시장의 성장에 따라 수산 가공식품이 증가하면서 소포장 간식으로 출시된 가공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한류 확산으로 한국 식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동남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미역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칼슘과 칼륨이 풍부해 산모에게 좋은 대표적인 음식으로서 미역국, 짬 요리, 무침 요리, 샐러드 등에 활용되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국내 해조류 소비동향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번 라오스 쿡마켓 관계자는 “전복은 고가인 반면 김, 김부각 등 해조류 가공품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서 매년 소비가 증가추세에 있다” 고 전했다.

이러한 소비시장을 겨냥하여 지역의 해조류 산업을 1차 산업에서 머물지 않고 가공산업을 육성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게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단지 신설도 조속히 마련하여 해조류 생산에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점하고 있는 지역의 장점을 십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거둘 때 우리 군이 대표 수산군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